

암묵적 접근을 통한 바람직한 초등학교 교사상의 구성요인 탐색

강영심 · 이미아[†] · 정은영
(부산대학교)

Exploration of the Component Factors on Images of Good Elementary Teacher based on Implicit Theories

Young-Sim KANG · Mi-A LEE · Eun-Young JUNG

Pusan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October 12, 2006 / Accepted December 8, 2006)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omponent factors on images of good elementary teacher. 579 elementary teachers in Busan were sampled to be surveyed. The subjects answered open-ended questionnaire related to characteristics of good teacher. The number of items obtained from the questionnaire is 79.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applied to the data. As a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components of good teacher are classified into five factors : fairness, enthusiasm, commitment, warmth, self-management. All such factors might be related to the personality in common. It shows that teachers think the personality important as a characteristic of good teacher. On the basis of this result we offer a suggestion to the teacher education.

Key Words : good teacher, implicit theory, factor analysis

I. 서론

오늘날 우리 교육 현실은 교사의 윤리를 위시해서 교육풍토, 입시, 교육내실화 등 여러모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교직자에 대한 불신 및 교사 자신의 사명감 상실과 사기저하와 같은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적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진정한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올바른 교직관과 전문성을 갖춘 자질 있는 교사양성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교사양성을 위한 첫 단계는 교사교육을 통해 양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교사상을 정립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교사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하면 훌륭하고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모든 교사들이 안고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 오랜 세월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이에 대해 명쾌한 정의를 내리기란 어렵다(Field & Field, 1994; Hamachek, 1999). 그러나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교사란 교사로서 높은 수준의 자질을 체득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특정한 시대와 사회의 교육현실에서 제기되는 역할들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교사를 말하지만(안창선, 남경현, 이육범, 1999), 교사자질에 대한 규정은 교육관이나 교육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김중서, 1984; 김종철, 1984). 따라서 바람직한 교사에 대한 정의는

[†] Corresponding author : 051-510-2725, imeroad@hanmail.net

교사가 가져야 하는 교사자질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많은 선행 연구자들이 바람직한 초등학교 교사상을 정립하고자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한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교사자질은 교사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에 따른 자질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성향에 따라 교사 자질을 분류하기도 하였으며, 교육의 시대성과 사회성을 반영하는 교육사조나 교육관에 따라서도 그 기준이 바뀌어왔다.

교사자질을 학급, 학교, 사회에서의 역할 등 활동범주를 중심으로 교사역할을 분류하는 연구(김윤태 등, 1984; 김재우, 1996; 김종철 등, 1994; 신통철, 2003; 정우현, 1995; 최성락, 1997)에 따르면, 교사의 역할은 교과지도자, 인간관계형성자, 가치교육자, 사고력 배양자, 상담자, 부모대리자, 친구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질들은 교과 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애정과 사회성, 창의성, 비판력, 협동정신 등 실로 다양하다.

다음으로, 교사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 자질로 가치관 및 태도, 인성 및 품성, 교과지식 및 기술, 외국어능력이나 창의적 사고와 같은 일반적 능력, 심체(心體)적 건강, 실천력, 연구하는 태도,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자로서의 전문성과 같은 성향을 중심으로 정리한 연구들도 있다(김경자, 2003; 이병진, 2003; 조용기, 2003).

마지막으로, 전통주의, 진보주의, 학문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 그리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구성주의 교육관에 따라 요구되는 교사자질에는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지식의 구조와 탐구 또는 발견학습을 강조하는 학문중심주의적 관점에서는 상담자나 안내자로서의 능력보다는 교사의 지적 기능의 중시하는 반면, 인간주의적 관점에서는 아동존중과 긍정적 인간관을 가지고 타인과의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절제능력을 보다 중요시 한다(안창선, 남경현, 이육범, 1999). 이 외에도 교사적성 및 자질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들(박영무,

1986; 변창진 등, 1984; 조영남, 2000)에서 제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수업계획, 수업전략, 전문적 능력, 인성적 요인, 대인관계, 학급관리, 사무처리와 같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교사자질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훌륭한 교사는 교직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관을 가져야 하며 교직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능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건전한 인성과 품성으로 아동에 대한 사랑과 이해, 관심을 지님과 동시에 정서적인 안정과 신체적인 건강을 갖춘 교사여야 한다.

교사가 앞서 열거한 자질들을 모두 갖춘다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질들을 모두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현재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이러한 자질 요소들 가운데 어떠한 요소들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위대한 교육자의 자질과 인격적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들(김정환, 1981; 김태오, 2002; Borich, 2000)이나 교육의 본질이나 이념에서 도출된 교사상(김중서, 1984; 김종철, 1984; 윤종건, 2000; 이돈희, 2000; 이병진, 2003; 조용기, 2003)은 교사의 덕행목록들을 잘 정리하여 제시하기는 하지만, 그 목록이 추상적이고 규범적이며, 구체적이지 못하여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모의실험 상황이나 실제 교수에서의 교사의 행동 및 어투를 관찰하고 이를 유형화하는 방법 또는 개인적 경험에 대해 회고하여 기록하는 방법, 사례연구들(박영무, 1986; 변창진 등, 1984; 신통철, 1997; Calderhead, 1996; Shulman, 1986)은 기존에 만들어진 척도를 가지고 평가자들이 응답하기 때문에 척도값 내에서의 순위순위를 정할 수는 있지만 새롭게 부각되는 교사자질을 간파하는 제한점을 가진다(Kutnick & Jules, 1993). 따라서 현직 교사들이 실제로 바람직한 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자질로 여기는 요소들을 확인하고,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비교하는 것은 가치로운 작업이라

하겠다.

현직 교사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하고 훌륭한 교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암묵적 접근이 요구되어진다. 기존의 명시적 이론에서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암묵적 지식’이라 하며(Sternberg, 1985; Sternberg, Conway, Ketron, & Bernstein, 1981), 이러한 암묵적 지식을 끄집어내고, 체계화하는 방법을 ‘암묵적 접근’이라 한다(권준모, 2003; 김성수, 2001). 이러한 암묵적 접근을 통해 우리는 상황적 맥락 안에서 사물의 본질을 알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시적 이론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다.

암묵적 접근을 이용해 제시되는 바람직한 교사상은 기존의 제안된 교사상과 차이가 있고, 기존 이론이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람직한 교사상 가운데 특히 중요한 부분이나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조주연 등, 2004; Beishuizen et. al., 2001).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교사상은 현재의 교육현실과 시대성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교사 자질론에서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 교사들이 실제로 머리 속에 갖고 있는 바람직한 교사상의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암묵적 이론을 근거하여,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훌륭하고 유능한 교사들이 보이는 행동 특성들에 대해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조사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현직 교사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한 다양하고 실제적인 요인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현직교육과 예비교사들의 직전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의 20개 초등학교 교사 57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평균 연령은 37.38세(최저연령 22세, 최고연령 58세)이고, 교육경력 은 10년 이하가 34.8%, 11년에서 20년이 35.2%, 21년 이상이 29.9% 였다. 문항개발에는 90명(남: 8명, 여:82명), 문항적절성 평가에 489명(남:72명, 여:417명)이 참여하였다.

2. 연구절차

가. 문항개발

바람직한 초등학교 교사상의 하위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암묵적 이론의 접근방법을 통하여 문항개발을 진행하였다. 먼저,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훌륭하고 유능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보이는 행동 특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기술하도록 하였다.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한 문항개발을 위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한 기초자료를 목록화하여 총 79문항(부록1)으로 정리하였다. 이 때 한번이라도 언급된 내용은 모두 문항에 포함시켰으며, 연구자, 교육학박사, 박사과정 대학원생, 초등교사, 국어교사 등 10명의 교육관련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여 문항을 선정하였다.

전반적으로 문항을 만드는 단계에서 아래와 같은 문항작성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문항을 선별하고 문항을 작성하였다.

첫째, 특성을 기술한 문항을 작성함에 있어서 “비교적, 거의, 아마”와 같이 사람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서로 다를 수 있는 모호한 부사의 사용은 가능한 금하였다.

둘째,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추상적 어휘사용을 배제하고, 쉬운 어휘를 사용하되 짧고 간결한 문장이 되도록 하여, 응답자가 머뭇거림이 없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문항적절성 평가

문항적절성 평가는 문항개발을 통해 선정된 문

항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5점: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보통이다, 2점: 아니다. 1점: 전혀 아니다). 문항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각 문항이 바람직한 교사상의 행동특성이 어느 정도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평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 각 문항의 평균 점수가 3.5이하인 문항은 제거되었다.

다. 자료분석

문항개발과 문항적절성 평가를 통해 수집된 79 문항에 대한 응답자료를 SPSS Win.12.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공통요인모형 가운데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구조의 회전은 직교회전을 사용하였다.

사회과학이나 행동과학에서 다루는 구성개념들은 대부분 독립적이라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교회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교회전을 할 경우 요인간의 다중공선성으로 인하여 명확한 해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요인점수를 추후 분석에 활용하는데 제약을 받기 때문에(양병화, 2004) 본 연구에서는 직교회전을 이용하였다. 필요한 요인의 수는 고유치 1.0이상, 스크린 검사 결과 상관행렬의 고유치를 큰 것에서 작은 것까지 평면에서 점을 찍을 때 점의 크기가 거의 변하지 않는 지점 바로 전까지인 요인, 누적분산비율, 1개의 요인에 적어도 3개 이상의 변인을 기초로 해야 하는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이순목, 1995) 결정하였다. 그리고 세 개의 요인 이상에서 요인부하량이 .4이상인 문항, 요인부하량이 .3미만으로 어느 요인에도 포함되지 않는 문항, 그리고 공통성이 너무 낮아 요인의 하위변인으로 부적절한 문항은 제거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및 첨도에 대한 분석

문항우선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편포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 문항의 표준편차는 .56~.79 사이에 있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문항별 편포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역시 모두 절대치 2.0보다 작아 심한 편포를 보이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도 역시 절대치 3을 벗어나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질적인 응답자들을 변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바람직한 초등학교 교사상의 요인분석 결과

바람직한 교사상에는 공통분산뿐만 아니라 문항 특유의 분산과 측정시의 오차가 포함된 고유분산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공통요인분석모형을 채택하였다. 공통분의 추정치로 다중상관계급치를 사용하였으며, 기초구조의 추출을 위해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한편, 평가인정 기준의 잠재적 요인 수를 추출하기 위하여 고유값, 누적분산 퍼센트 및 스크린 검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추출한 요인의 개수가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후의 잔차상관행렬을 검토하였다.

<표 1>은 공통요인분석에 의한 최대우도법의 결과로 얻은 고유값과 누적분산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고유값과 누적분산비율

요인번호	1	2	3	4	5
고유값	13.07	1.77	1.41	1.05	1.01
분산비율	43.56	5.88	4.70	3.50	3.38
누적분산비율	43.56	49.45	54.15	57.64	61.02
요인번호	6	7	8	9	10
고유값	.86	.78	.78	.70	.66
분산비율	2.87	2.61	2.59	2.34	2.21
누적분산비율	63.89	66.50	69.09	71.43	73.64

<표 1>을 살펴보면 1.0이상인 요인을 유효한 요인으로 할 경우 5개의 요인이 추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요인구조의 회전

바람직한 초등학교 교사상에 대한 최종 요인구조를 추출하기 위한 회전방법으로는 직교회전을 실시하였다. <표 2>는 직교회전 이후의 각 요인간 상관관계행렬이다.

<표 2> 직각회전 후 바람직한 교사상 하위요인의 요인간 상관계수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공정성	열정	헌신성	온정	자기 관리
요인1	1.00				
요인2	0.43***	1.00			
요인3	0.43***	0.37***	1.00		
요인4	0.47***	0.38***	0.37***	1.00	
요인5	0.40***	0.31***	0.23***	0.32***	1.00

바람직한 초등학교 교사상의 요인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계수행렬에서 요인부하량이 가장 큰 변수를 기준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표 3>의 구조계수행렬에 근거하여 요인부하량이 .30이상인 문항을 중심으로 요인을 분류하였다.

<표 3>의 각 요인에 포함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요인 1은 전체변량의 14.47%를 설명하는 요인이다. 요인1에는 모두 8개의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이 문항들에는 정직하고 겸손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특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공정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전체변량의 13.87%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9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9개의 문항은 주로 적극성과 활동성, 자신감, 리더쉽과 같은 특성이 중심으로 이루고 있어 '열정'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전체변량의 13.37%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7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7개의 문항은 교사에 대한 사명감과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고, 아동 개개인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은 특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

고 있어 '헌신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전체변량의 6.50%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3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3개의 문항은 너그러운 포용력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온정'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5는 전체변량의 5.50%를 설명하는 요인 3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3개의 문항은 매사에 빈틈없이 일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복장이나 주변 정리정돈을 잘하는 교사특성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자기관리'라고 명명하였다.

이와 같은 5개의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한 요인 타당도를 설명하는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요인별 고유분산과 누적분산을 제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4. 요인-문항간 상관관계 및 신뢰도 분석

본 조사결과와 분석은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5개의 하위영역에 속하여 있는 문항들이 단일 차원을 평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항-요인간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결과, 상관의 범위는 .70에서 .91 사이인 것으로 나타나, 각 요인내의 문항들이 상당히 동질적이고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은 그 요인이 측정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교사상의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동시에 전체 바람직한 교사상의 신뢰도는 .95였으며, 각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를 보면 요인1은 .91, 요인2는 .88, 요인3은 .88, 요인4는 .82, 요인5는 .70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암묵적 접근을 통하여 초등학교 교사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사상의 구성요인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표 3> 직교회전 후의 요인구조계수행렬

문항	요인					h ²
	요인 1 공정성	요인 2 열정	요인 3 헌신성	요인 4 온정	요인 5 자기관리	
62.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	0.681	0.155	0.316	0.178	0.187	.66
61. 정직하다.	0.671	0.211	0.291	0.126	0.148	.62
60. 겸손하다.	0.632	0.297	0.229	0.132	0.231	.61
66.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0.593	0.209	0.276	0.257	0.165	.56
68.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안다.	0.579	0.233	0.261	0.202	0.168	.53
33. 정보나 지식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	0.550	0.363	0.204	0.148	0.096	.51
34. 동료교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다.	0.544	0.398	0.236	0.201	0.075	.56
48. 남을 배려한다.	0.530	0.328	0.268	0.286	0.157	.57
77. 적극적이다.	0.291	0.662	0.286	0.116	0.061	.62
47. 활동적이다.	0.260	0.612	0.246	0.181	0.172	.57
54. 진취적이다.	0.348	0.604	0.256	0.133	0.084	.58
75. 자신감이 있다.	0.277	0.592	0.305	0.159	0.086	.55
72. 특기가 있다.	0.097	0.588	0.127	0.156	0.342	.51
59. 리더십이 있다.	0.267	0.519	0.201	0.053	0.240	.44
27. 동료교사들에게 방향제시를 해준다.	0.302	0.434	0.257	0.230	0.196	.44
42. 예능교과 기능이 뛰어나다.	0.145	0.412	0.080	0.200	0.353	.36
29. 상식이 풍부하다.	0.301	0.406	0.224	0.216	0.249	.42
3. 교육철학이 있다.	0.209	0.198	0.691	0.125	0.077	.58
4. 가르치는 일에 흥미와 보람을 느낀다.	0.201	0.174	0.657	0.119	0.141	.54
2. 아동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0.297	0.180	0.655	0.121	0.040	.57
5. 아동 개개인에 대해 잘 파악한다.	0.264	0.196	0.617	0.230	0.134	.56
1. 교재연구에 충실하다.	0.191	0.212	0.617	0.180	0.107	.51
6. 사명감이 있다.	0.222	0.286	0.521	0.173	0.237	.49
15. 소신있게 행동한다.	0.261	0.300	0.441	0.193	0.070	.40
21. 너그럽다.	0.314	0.180	0.246	0.698	0.145	.70
22. 아동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다려줄 줄 안다.	0.264	0.246	0.366	0.676	0.066	.73
11. 포용력이 있다.	0.303	0.253	0.320	0.464	0.153	.50
64. 정리정돈을 잘한다.	0.268	0.205	0.113	0.100	0.702	.63
74. 복장이 단정하다.	0.305	0.357	0.166	0.073	0.415	.43
7. 매사에 빈틈없이 일을 처리한다.	0.083	0.398	0.281	0.063	0.410	.42
아이겐값	4.34	4.16	4.01	1.95	1.65	
설명변량	14.47	13.87	13.37	6.50	5.05	
누적변량	14.47	28.34	41.71	5.50	53.71	

토대로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암묵적 접근을 통해 교사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사의 특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공정성, 열정, 헌신성, 온정, 자기관리 등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 요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

술하면, 초등학교 현직 교사들은 1) 정직하고 겸손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공정한 교사, 2) 적극성과 활동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리드할 수 있는 열정적인 교사, 3)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교육철학을 가지고 아동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적인 교사, 4) 너그럽고 포용력이 있어 온정

이 느껴지는 교사, 5) 매사에 빈틈없이 일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복장이나 주변 정리정돈을 잘하는 자기관리가 철저한 교사를 바람직한 교사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5가지 구성요인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은 인성적, 성격적 자질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현직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은 훌륭하고 바람직한 교사 자질로 인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성적 자질은 기존의 바람직한 교사상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자질 가운데 하나이다(김정환, 1981; 김종철, 1984; 안창선, 남경현, 이옥범, 1999; 윤종건, 1998; 조영남, 2000; 홍기철, 2003; Kutnick & Jules, 1993; Youniss, 1980). 그러나 현직 교사들은 지도자로서, 수업전문가로서, 생활지도자로서, 학급경영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다양한 자질 가운데 인성적 자질을 가장 중요한 자질로 꼽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초등학교 교사상에 대한 연구(오숙자, 2001; 장혜정, 2002)에서 교사들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아이들을 이해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들을 편애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해 주며, 이해심과 자상함을 가져야 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초등 교직적성검사 모형 개발을 위해 암묵적 접근 방식을 이용한 조주연 등(2004)은 교직적성을 지적 능력과 인성특성으로 나누고, 이들의 하위 구성요소를 탐색하기 위하여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성적 특성은 교사로서의 소명감,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와 관련된 인간적 리더쉽, 그리고 성실성과 원만한 대인관계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람직한 교사상의 구성요인 소명감과 헌신성에서 공통점을 보이는 반면, 다른 특성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또한 현직 교사들에게 이상적인 교사상의 특성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고 내용분석을 실시한 임정진(1983)은 빈도분석을 통해 교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사 자질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직 교사들은 아동이해, 열성, 사랑, 수업기술 및 지식, 유모어 등에 대한 내용이 높은 빈도를 나타낸 반면, 공정성은 언급된 빈도수가 적었다. 임정진의 연구가 10여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고, 본 연구대상 교사들이 공정성을 바람직한 교사의 자질 가운데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는 점은 현 시대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새 시대의 바람직한 교사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질로 윤종건(2000)은 사애(四愛; 인간애, 학문애, 교육애, 자기애)와 사기(四技; 상담전문가, 컴퓨터전문가, 특수교육전문가, 창의력교육전문가)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사애라고 하는 영역은 인성적 자질과 공통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학교의 목적과 기능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교사에게 요구되어 지는 자질들과 그것의 중요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곽영우, 1999; 신극범, 1997; 윤종건, 2000; 한명희, 1995), 여전히 바람직한 초등학교 교사의 자질로 인성적 자질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의 전달과 새로운 경험의 획득만이 아니라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시켜 주는 일이다. 그 가운데 초등교육은 모든 교육의 기본이며 바탕이며, 학생의 심성함양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특히 초등교사의 올바른 인성과 전문가적 자질이 요구된다(김용조, 1999; 유한구, 2006; 조주연 등, 2004).

일반적으로 교원양성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사적성검사 모형개발이나 심층면담 방안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교사적성을 교과에 대한 지식과 학습지도에 대한 기술로 구성된 지적 차원과 교직원이나 원만한 대인관계 등과 관련된 정의적 차원으로 나누고 있다(김충행, 1989; 조주연 등, 2004; 홍기철, 2003). 그런데 본 연구결과에서는 현장의 교사들이 바람직한 교사 자질로 교수-학습과 관련된

기술이나 능력보다는 인성적 영역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암묵적 접근방식을 통해 실제 교육현장에 몸담고 있는 교사 자신들의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길러주는 교사교육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인성적 자질과 같은 요소들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현직 교사와 예비교사들의 인성적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교사 교육기관인 교육대학에서 교육기초 과목이나 교양과목 등을 통하여 인성적 자질 요인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현직에 교사들을 위한 인성적 자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인성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교사의 정서함양과 인성적 자질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개방형 설문조사를 토대로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한 5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인성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과 관련된 영역에 대한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요인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바람직한 초등학교 교사상에 대한 교사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교육을 받는 당사자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사상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식과 교사의 인식을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사상을 알아보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등 다양한 교육장면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이 생각하는 교사상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앞으로 종합적인 교육자상을 정립하는데 실질적

인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곽영우, 새 천년 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선 방안, 한국교사교육 16(1), pp. 1~21, 1999.
- 권준모, 지능에 대한 암묵적 이론과 성취동기, 교육심리연구 17(1), pp. 95~107, 2003.
- 김경자,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자로서의 초등교사. 21세기의 바람직한 초등교사상: 제 2회 전국교육대학교 연합학술대회 자료집, pp. 21~48, 2003.
- 김성수, 학습 및 흥미활동에 대한 관련된 동기화 요인에 대한 암묵적 접근,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김용조, 초등교사의 인성적 자질에 관한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논문집 34, pp. 429~458, 1999.
- 김윤태 · 서정화 · 노종희, 교사와 교직사회, 서울: 배영사, 1984.
- 김재우, 교직교육론, 서울: 양서원, 1996.
- 김정환, 과거 · 현대 · 미래의 바람직한 교사상, 교육학연구 19(3), pp. 17~23, 1981.
- 김중서, 교원의 전문성, 김종철 외 6인(편), 교사론, 서울: 교육과학사, 1984.
- 김종철, 현대사회와 교원, 김종철 외 6인(편), 교사론, 서울: 교육과학사, 1984.
- 김충행, 교사적성변인과 그 측정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3, pp. 1~21, 1989.
- 김태오, 퇴계의 삶에서 본 교사상, 교육철학 22, pp. 61~79, 2002.
- 박영무, CBTE에 의한 교등교사 양성과정 편성을 위한 준거설정,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변창진 · 이경섭 · 김창수 · 박종렬, 교사competence의 평가준거와 평가방법의 개발, 경북대학교 논문집 37, pp. 257~276, 1984.
- 신극범, 21세기 정보화 사회와 교원정책, 국제

- 심포지움, pp. 17~25, 1997.
- 신통철, 교실관리자로서의 초등학교 교사, 21세기의 바람직한 초등교사상: 제 2회 전국교육대학교 연합학술대회 자료집, pp. 51~68, 2003.
- 안창선 · 남경현 · 이옥범, 교사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9.
- 양병화,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2004.
- 오숙자, 초등학교 교사상에 대한 교사 · 학부모 · 학생의 인식 분석,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유한구, 초등교육의 성격과 과제, 초등교육연구 19(1), pp. 1~16, 2006.
- 윤종건, 교사론, 서울: 정민사, 1998.
- 윤종건, 포스트모더니즘, 구성주의, 그리고 바람직한 교사상, 한국교사교육 17(3), pp. 213~229, 2000.
- 음명숙, 바람직한 교사상에 관한 비교 분석,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돈희, 21세기의 교사상과 교직, 한국교사교육 17(1), pp. 1~18, 2000.
- 이병진, 21C 바람직한 초등교사상, 21세기의 바람직한 초등교사상: 제2회 전국교육대학교 연합학술대회 자료집, pp. 3-18, 2003.
- 이순목, 요인분석 1, 서울: 학지사, 1995.
- 이정복, 교사자질에 관한 비교 연구, 교육발전 18(1), PP. 107~127, 2000.
- 임정진, 바람직한 교사상, 인천교육대학교 논문집 17(1), pp. 51~63, 1983.
- 장혜정, 교사 · 학부모 · 학생이 기대하는 초등학교 교사상,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정우현, 교사론, 서울: 배영사, 1995.
- 조영남, 교사 자질 선정 및 평가 준거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교사교육 17(3), pp. 171~189, 2000.
- 조용기, 교사와 교육자, 초등교육연구논총 18(3), pp. 1~16, 2003.
- 조주연 · 백순근 · 임진영 · 여태철 · 최지은, 초등 교직적성검사 모형개발 연구, 교육심리연구 18(3), pp. 231~247, 2004.
- 최성락, 교원의 역할과 자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7.
- 한명희, 교육경험의 재개념화와 교사역할의 조망, 교육학연구, 33(1), pp. 1~26, 1995.
- 홍기철, 교직적성 및 인성을 갖춘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심층면접방안 연구, 초등교육연구논총 19(2), pp. 301~343, 2003.
- Beishuizen, J.J. · Hof, E. · Van Putten, C.M. · Bruwmeester, S. · Asscher, J.J. "Students' and teachers' cognitions about good teacher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 pp. 185-201, 2001.
- Borich, G. Effective Teaching Methods(4th Eds.). New Jersey: Pearson Education. Inc., 2000.
- Calderhead, J. Teachers: beliefs and knowledge. In D.C. Berliner & R.C. Calfee(Eds.) Handbook of educational psychology(pp.709~726). New York: Simon & Schuster Macmillan, 1996.
- Field, B. · Field, T. Teacher as mentors: A practical guide. London: The Falmer Press, 1994.
- Hamachek, D. Effective teachers: What they do, how they do it, and the importance of self-knowledge. In R.P. Lipka, & T.M. Brinthaupt(Eds.), The role of self in teacher development(pp. 189~224).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9.
- Kutnick, p. · Jules, V. "Pupils' perceptions of a good teacher: A developmental perspective from Trinidad and Tabago"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3, pp. 400~413, 1993.

Shulman, L.S. Paradigms and research programs in the study of teaching: a contemporary perspective. In M.C. Wittrock(E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3rd ed., pp.3~36). New York: Macmillan, 1986.

Sternberg, R. Beyond IQ: A triarchic theory of human intelligence, 하대현 역(1991), 신지능이론, 서울: 교문사, 1985.

Sternberg, R.J. · Conway, B.E. · Ketron, J.L. · Bernstein, M. "People's conception of intellig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pp. 37~55, 1981.

Youniss, J. Parents and peers in social develop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부록 1>

1. 교재 연구에 충실하다.	27. 동료교사들에게 방향제시를 해준다.	53. 아동들이 학습에 흥미를 갖도록 도와준다.
2. 아동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28. 인성이 바르다.	54. 진취적이다.
3. 교육철학이 있다.	29. 상식이 풍부하다.	55. 논리적이다.
4. 가르치는 일에 흥미와 보람을 느낀다.	30. 성실하다.	56. 스스로 모범이 되려고 노력한다.
5. 아동 개개인에 대해 잘 파악한다.	31. 칭찬을 많이 한다.	57. 아동과의 약속을 잘 지킨다.
6. 사명감이 있다.	32. 책임감이 강하다.	58. 교수방법이 다양하다.
7. 매사에 빈틈없이 일을 처리한다.	33. 정보나 지식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	59. 리더십이 있다.
8. 자기 감정 조절력이 있다.	34. 동료교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다.	60. 겸손하다.
9.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35.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준다.	61. 정직하다.
10. 아동과 청소를 같이 한다.	36. 아이들 상담을 잘 한다.	62.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
11. 포용력이 있다.	37. 일관성이 있다.	63. 경험이 풍부하다.
12. 자기를 사랑한다.	38. 학생이나 동료교사의 어려운 점을 돕는다.	64. 정리정돈을 잘한다.
13.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39. 체벌보다는 말로 잘 타이른다.	65. 차별없이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한다.
14. 아동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한다.	40. 성격이 밝다.	66.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15. 소신있게 행동한다.	41. 아동들을 좋아한다.	67. 창의적으로 학습경영을 한다.
16.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힘쓴다.	42. 예능교과 기능이 뛰어나다.	68.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안다.
17. 아동들의 눈높이에 자기를 맞춘다.	43. 양보심이 있다.	69. 새로운 시도를 잘한다.
18. 폭넓은 사고를 한다.	44. 아동들의 의사를 존중한다.	70. 학교 일에 협력한다.
19. 융통성이 있다.	45. 아동들에게 꿈을 심어준다.	71. 어른을 공경한다.
20. 늘 배우려는 태도를 가진다.	46. 용서할 줄 안다.	72. 특기가 있다.
21. 너그럽다.	47. 활동적이다.	73. 긍정적이다.
22. 아동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다려줄 줄 안다.	48. 남을 배려한다.	74. 복장이 단정하다.
23. 건강하다.	49. 아동들에게 헌신적이다.	75. 자신감이 있다.
24. 아동들을 잘 다룬다.	50. 아동 중심의 학습활동을 유도한다.	76. 자신의 분야에 열의를 가지고 있다.
25. 유머가 있다.	51. 아동들에게 유익한 활동을 많이 하게 한다.	77. 적극적이다.
26. 학생들과 유대관계를 잘 유지한다.	52. 교양이 있다.	78. 맡은 일에 충실하다.
		79. 믿음을 준다.